



글로벌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실태 최근 동향

김진억 수석담당역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실무 규정들이 마련되는 등 규제개혁이 일상화됨에 따라 금융기관도 이에 변화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고 최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규정화되면서 금융산업은 실무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미국의 월가 개혁법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Act)과 바젤Ⅲ는 몇 년 전에 도입되었지만 실무적인 규정들은 아직도 마련 중에 있음.
 - 미 연방준비은행이 강화된 건전성 표준(EPS)을 도입하고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은행의 건전성 감독기관이 되었으며, 영국에서는 은행표준검토위원회(BSRC)을 설립하는 등 새로운 규제관련 조치들이 지속되고 있음.
- 규제 환경의 새로운 변화로 금융기관 기업지배구조, 자본적정성, 스트레스 테스트, 운영리스크, 데이터와 정보시스템, 그리고 리스크문화 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실무에 대한 조사¹⁾ 결과, 이전보다 리스크관리에 이사회의 경영역량이 집중되고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의 채용이 늘고 있으며 전사적위험관리(ERM)가 표준화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규제요건이 구체화되고 강화되면서 금융기관 이사회는 2년 전 조사 때보다 리스크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금융기관 이사회의 리스크관리 업무도 전사적 위험선호도 결정, 전사 리스크 프로파일에 따른 기업전략 검토 등 보다 고도화된 의사결정이 증가함.
- CRO의 채용이 증가하여 거의 보편화되었으며, CRO의 책임도 강화되었음.
 - 약 92%의 금융기관이 CRO나 동등한 수준의 리스크관리책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12

1) 2014년 11월, 전 세계 71개 금융기관의 CRO 등을 대상으로 한 리스크관리 실무에 대한 Deloitte의 조사결과로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의 은행, 보험, 증권회사를 아우름.

년 89%, 2002년 65%보다 증가한 것임.

- ERM이 표준적인 리스크관리 프로그램이 되고 있으며,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기법의 사용도 증가함.
 - 대형 금융기관의 ERM 도입에 대한 규제당국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기관들도 ERM을 가지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비율이 92%로 높아졌으며,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기법 이용도 증가함.
- 은행의 경우 이미 바젤Ⅲ 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은행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보험의 경우 유럽의 솔벤시Ⅱ가 2016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미국에서는 금융그룹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보험자본기준 도입도 진행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급격한 규제 변화가 예상된다.
 - 은행 응답자의 89%가 이미 바젤Ⅲ 최소 자본비율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응답하였음.
 - 유럽 보험회사들은 솔벤시Ⅱ 도입²⁾ 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2012년에만 57억~66억 달러를 지출(ROE의 1.01%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규제준수 비용 증가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봄.
- 그 밖에도 금융기관들은 사이버보안과 같은 새로운 운영리스크 관리에는 아직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규제에 맞춰 리스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금까지 규제당국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여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실무는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더욱 업그레이드되어야 함.

- 많은 금융기관들은 최고경영진 수준에서 강력한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조직의 리스크문화를 임직원들에게 내재화함으로써 영업행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규제당국이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기법을 이용함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스트레스 테스트 운용능력을 배양하고 경험있는 인재를 확보해야 함.
-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이버보안 관리가 중요함.
 - 각 금융기관들은 IT 보안 프로세스의 개선뿐만 아니라 전산장비 판매업자(Vendor)의 선택과정과 보안절차 평가의 개선이 필요함.
- 금융기관들은 리스크관련 데이터와 정보시스템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들은 적시에 고품질의 리스크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

(Deloitte University Press)

2)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그리고 대만이 솔벤시Ⅱ 도입 움직임이 있음.